

宿, 今以牽牛爲宿. ㉔ 이르다. 《廣韻, 願韻》建, 至也. ㉕ 잠그다. 鍵과 통용. 일설에는, 鍵과 통용한다고 한다. →建鑿. ㉖ 굳세다. 강건하다. 健과 통용 →建德의 ㉗. ㉘ 게으르다. 倦과 통용. 일설에는, 逮의 와자라 하여 逮는怠와 통용한다고 본다. 《墨子, 號令》遣卒候者, 無過五十人. 客至堞, 去之, 慎無厭建. 《孫詒讓問詁》建, 讀爲券, 聲近字通. 考工記轉人, 左不鍵, 杜子春云, 書鍵或作券. 鄭康成云, 券, 今倦字也. 又襟守篇作唯傘逮, 則疑建即逮之形誤. 逮與怠音近古通. 非儒篇立命而怠事, 晏子春秋外篇, 怠作建, 二義並通, 未知孰是. 《張純一集解》此文, 並晏子春秋, 兩建字, 皆逮之譌. 逮通怠. ㉙ 쟁기에 쏘는 비녀장. 윈(輓)과 평(評)을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耒耜經》犁評之上曲而衡者曰建, 斲木爲之, 建, 捷也, 所以扼其輓與評, 無是則二物躍出, 箭不能止. ㉚ 성(姓). 《廣韻, 願韻》建, 姓. 楚王子建之後, 漢元后傳, 有建公. ㉛ 었다. 뒤었다. 《集韻, 阮韻》建, 覆也. 《史記, 高祖本紀》〔秦中〕地勢便利, 其以下兵於諸侯, 譬猶居高屋之上建瓴水也. 《裴駰集解》瓴, 盛水瓶也. 居高屋之上, 而幡瓴水, 言其向下之勢易也. 建音蹇.

【建家 건가】 국가를 세움. 《書, 盤庚中》永建乃家. 《孔傳》卿大夫稱家. 《文選, 張衡, 東京賦》高既受命建家, 造我區夏矣. 《薛綜注》言高祖受上天之命, 建立國家, 制造區夏. / 南朝齊, 王融《三月三日曲水詩序》我大齊之握機創歷, 誕命建家, 接禮禮宮, 考庸太室.

【建嘉 건가】 남송(南宋) 때 안남(安南) 지방 교지국(交趾國) 혜종(惠宗: 李昪)의 연호. (1211~1224)

【建江 건강】 = 建溪.

【建康 건강】 ㉑ 전량(前涼) 때 둔 군(郡). 성은 감숙성(甘肅省) 고대현(高臺縣) 남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陝西, 甘肅鎮, 甘肅後衛》 ㉒ 진대(晉代)에 둔 현(縣). 삼국시대 오(吳) 건업(建業)의 땅인데, 건흥(建興) 초기에 건강으로 고쳤다. 성은 남경시(南京市) 남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江南, 江寧府, 江寧縣》 ㉓ 연호(年號). ① 후한(後漢) 순제(順帝: 劉保)의 연호. (144) ② 진대(晉代) 남양왕(南陽王: 保)의 참칭 연호. (319~320) ③ 원대(元代) 임계방(林桂芳)의 참칭 연호. (1283) ㉔ 당(唐) 오염(吳岳)의 자(字).

【建康實錄 건강실록】 당(唐)의 허숭(許嵩)이 지은 책. 20권. 오 대제(吳大帝)에서 남조진(南朝陳) 후주(後主) 때까지 4백 년 동안의 육조(六朝)의 사적을 기술하고, 말미에 후량(後梁)의 사적을 붙였다. 육조가 모두 건강을 수도로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四庫提要, 史, 別史類》

【建溪 건계】 복건성(福建省) 건구현(建甌縣)에 있는 강. 민강(閩江)의 북쪽 원류이며, 차 생산지로 유명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건차(建茶)가 차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였다. 建江. / 宋, 梅堯臣《得太簡蒙頂茶詩》陸羽舊茶經, 一意重蒙頂, 比來唯建溪, 團片敵湯餅. / 宋, 吳曾《能改齋漫錄, 方物》畫境錄: 有唐茶品, 以陽羨爲上供……迨至本朝, 建溪獨盛.

【建溪春 건계춘】 = 建茶. / 宋, 梅堯臣《吳正仲遺新茶詩》十片建溪春, 乾雲碾作塵. 天王初受貢, 楚客已烹新. / 宋, 梅堯臣《呂縉叔著作遺新茶詩》四葉及王游, 共家原坂嶺, 歲摘建溪春, 爭先取晴景.

【建鼓 건고】 ㉑ 군대에서 작전 수행시, 북을 울려서 전진과 후퇴를 지휘하는 일. 또는 그 북. 《左傳, 哀公13年》日旰矣, 大事未成, 二臣之罪也. 建鼓整列, 二臣死之, 長幼必可知也. 《孔穎達疏》建, 立也. 立鼓擊之與戰也. 《國語, 吳語》十旌一將軍, 載常建鼓, 挾經秉枹. 《韋昭注》鼓, 晉鼓也. 周禮, 將軍執晉鼓. 建, 謂爲楹而樹之. ㉒ 북 이름. 태고(太鼓)의 하나. 북의 몸체는 길고 둥글며, 나무 기둥으로 몸체를 꿰어서

지주(支柱)를 삼았다. 植鼓. 楹鼓. 《儀禮, 大射儀》建鼓在阼階西. 《鄭玄注》建, 猶樹也. 以木貫而載之, 樹之附也. 《漢書, 何並傳》令騎奴還至寺門, 拔刀剝其建鼓. 《顏師古注》建鼓, 一名植鼓, 建, 立也. 謂植木而旁懸鼓焉. 縣有此鼓者, 所以召集號令爲開閉之時. ㉓ 호북성(湖北省) 방현(房縣) 남동쪽에 있는 산. 《元和志》建鼓山, 與馬驢山連接, 二山並高峻, 冬夏積雪. / 宋, 樂史《太平寰宇記》袁崧云, 登句將山, 見馬鬣. 建鼓, 凝然半天.

【建囊 건고】 무기와 갑옷을 병기고에 넣고 잠금. 일설에는, 팔과 화살을 동개에 넣어 보관한다는 뜻이라 한다. 《禮記, 樂記》倒載干戈, 包之以虎皮, 將帥之士, 使爲諸侯, 名之爲建囊, 然後天下知武王之不復用兵也. 《鄭玄注》建, 讀爲鍵, 字之誤也. 兵甲之衣曰囊. 鍵囊, 言閉藏兵甲也. 《孔穎達疏》鍵, 箭杜也, 囊, 兵鎧之囊也. 言鎧及兵戈悉囊韜之, 置於武庫而鍵閉之, 故云名之曰鍵囊也. 《經義述聞, 禮記中(王引之)》

【建公 건공】 후한(後漢) 사마방(司馬防)의 자(字).

【建功 건공】 공을 세움. / 晉, 陸機《豪士賦序》立德之基有常, 而建功之路不一.

【建功立業 건공입업】 공훈과 업적을 세움. / 宋, 蘇軾《應制舉上兩制書》建功立業, 興利捍患. 《水滸傳, 68回》建功立業, 官爵陞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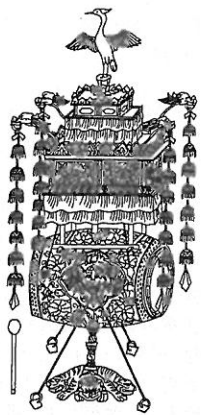
【建官 건관】 벼슬자리를 둠. 《書, 周官》唐虞稽古, 建官惟百. / 宋, 曾鞏《乞賜唐六典狀》其事至衆而舉之有條, 其體至大而統之有要, 可謂得建官制理之方.

【建光 건광】 ㉑ 연호(年號). ① 후한(後漢) 안제(安帝: 劉祐)의 연호. (121~122) ② 후연(後燕) 세조(世祖: 代翟遼)의 연호. (388~391) ㉒ 후한(後漢) 심난(沈鸞)의 자(字).

【建曠 건광】 상급 관청과 하급 관청이 수입이나 지출을 월별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루 치의 잉여분. 곧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할 때에는 30일로 계산하고, 이를 작은 달의 경우 중앙에 29일 치만 바치며, 예산을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보낼 때에는 30일로 계산하지만, 작은 달에 지방에서 이를 집행할 때에는 29일 치만을 계산하는 데서 발생하는 잉여분을 말한다. 《六部成語注解》凡徵收關稅, 無論月大小, 均按三十日徵收, 而按二十九日解部, 謂之小建銀, 其大建一日所餘之欸, 存留辦公, 謂之建曠.

【建曠銀 건광은】 회계상 달의 대소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의 은(銀). →建曠. 《六部成語, 兵部》建曠銀. 《注解》凡馬之食料, 皆按每月共三十日, 每月發給若干, 若值小建, 則曠一日之費, 其銀應充辦公之需.

【建國 건국】 ㉑ 천자가 제후국을 봉(封)하여 세워 줌. 《左傳, 桓公2年》故天子建國, 諸侯立家, 卿置側室, 大夫有貳宗, 士有隸子弟, 庶人工商各有分親, 皆有等衰. 《杜預注》立諸侯也. 《禮記, 祭法》天下有王, 分地建國, 置都立邑. 《鄭玄注》建國, 封諸侯也. ㉒ 천자가 봉(封)해 준 나라. 《史記, 蘇秦傳》當今之時, 山東之建國, 莫彊於趙. 《漢書, 高帝紀下》齊, 古之建國也, 今爲郡縣, 其復以爲諸侯. ㉓ 국도(國都)를 건설함. 《周禮, 天官, 冢宰》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孫詒讓正義》案大宰注云, 大曰邦, 小曰國, 邦之所居亦曰國.



建鼓 ㉑
《樂學軌範》